

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개선해 드립니다



산업통상자원부
국가기술표준원

Contents

I. 추진배경

II. 기술규제(기업애로) 개선절차

III. 기술규제 개선사례

* 출처 - 2019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

기술규제

정부가 국민 안전·건강, 환경보호 등의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, 제품·서비스에 대한 특성, 제조방법 및 관련공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표준,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(시험인증) 절차 등을 포함
예) 전기용품 안전기준, 식품의 표시기준,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등

(20.1월 e-나라 표준인증 기준)



긍정적측면

기술·품질 향상, 제품인지도 증가

부정적측면

시장출시 지연, 기업활동 제한

01



과도한 규제

기준이 높아 준수하기 어려워요!

02



중복 규제

같은 종류의 인증인데 왜 또 받아야 하나요?

03



국제기준 등과 다른 규제

국내에서 팔던 제품이 해외에서는 기준이 달라 팔 수가 없어요!

04



시대에 뒤떨어진 규제

아직도 10년 전 기준이 그대로입니다!

기술규제 개선활동의 근거 및 목적



시행 근거

국무총리훈령 ‘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한 기술규제 개혁작업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(제730호, '18.12., 개정)’에 따름

제2조(설치등)

-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 작업단(이하 “작업단” 이라 한다)을 둔다
- 2. 산업통상자원부: 기술규제개혁작업단

제3조(기능)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2. 기술규제개혁작업단: 기술기준 및 시험·검사·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,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,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·연구



목적

현행 기술기준 및 시험, 검사, 인증 등 적합성평가제도 중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어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

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 절차



완구의 전자파 시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.



기 존

모터나 회로 등을 포함하는 모든 완구는 전자파시험(EMC)을 받아야 함

* 해당 기자재가 전자파시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험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시험하여 과기정통부에 등록

→ 대부분 완구업체가 스스로 EMC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 시험 비용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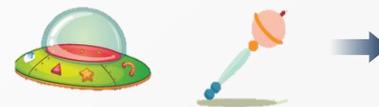


시험 비용 발생

개 선

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완구*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

* 전동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USB 또는 건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, 일시적으로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



전자파시험 면제

모델당 평균 40만원의 시험비용 절감으로 소형 완구업체 부담 완화

인버터에 대한 내진동 시험요건을 완화했습니다

진동 주파수와 진동폭 기준 현실화  산업통상자원부

기 존

인버터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시, 내진동 시험기준 및 측정 방법이 과도

주파수에 따른 진폭 기준이 과도하여, 필요 이상으로 내구성을 높여야 함



개 선

인버터에 대한 내진동 시험요건에서
주파수, 진폭요건 **완화**

현실에 맞는 내진동 기준으로 제품 신뢰도 향상
제조단가 및 시험비용 절감 효과

	개정전	개정후
진동 주파수	40Hz~55Hz	50Hz
진동폭	2mm	1mm



기능성 화장품 시험을 간소화하였습니다.

나이아신아마이드/아데노신 복합 처방 화장품 시험기간 단축  식품의약품안전처

기 존

나이아신아마이드(미백)와 아데노신(주름개선)이 단독 사용된 경우와 복합 사용된 경우의 시험방법이 다름

두 성분이 동시 분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, 시험 방법이 불필요하게 구분되어 있어 시간/비용 낭비

불필요한 중복시험!



개 선

복합 사용 시 적용하는 시험법 하나로 단독 사용 제품에 대한 시험이 가능
시험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

동일시험법 적용



나이아신아마이드



아데노신



나이아신아마이드+아데노신

수도용 자재 성적서 인정기간이 연장됩니다.

조달 납품을 위한 수도용 자재에 2년 내 용출시험 성적서 인정 

기 존

수도용 자재 제품은 위생안전기준(KC인증)을 취득하고 있음에도, 조달청에 납품하려면 추가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

KC인증은 2년마다 실시하는데 반해, 조달청은 1년 이내 성적서만 인정하고 있어 추가시험이 필요



개 선

조달 납품 시 2년 이내 용출시험 성적서 인정

시험수수료 절감 및 시험기간 단축!

시험수수료 건당 130만원 및 인증기간 약 1달 절감

수도용 자재 - 2년이내 성적서



KC용 성적서

+



조달용 성적서

→



공동 사용

지게차 규정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켰습니다

국제표준인 KS B ISO 6055:2015 준용  국토교통부

기 존

지게차의 오버헤드가드 높이에 대한 국내 규정이 국제기준과 다름

내수용과 수출용을 별도 생산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증가



좌승식

개 선

오버헤드가드에서 운전석 혹은 바닥면까지의 최소 간격을

국제표준 과 일치시킴



입승식

국제기준 부합화로 내수용과 수출용 전동지게차 설계 일원화 가능

연간 약 85억의 제작비 절감

* (탄소강 프레임 재료비 30만+ 도색·용접 등 공정가공비 50만+ 인건비 50만) x 15년 내수판매량 6,571대

감사합니다



국가기술표준원

기술규제정책과

043-870-5524

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

기술규제대응팀

02-2164-0037